

# 한국인의 자연관\*

— 풍수지리사상을 중심으로 —

심재룡\*\*

## 1. 들어가는 말: 풍수사상에 대한 先이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 혹은 자연환경이라고 지칭하는 대상은 형상을 가진 것에 한정된다. 동양의 전통사상에서는 천문과 지리를 구분해서 전자가 하늘(天)이라는 자연에 대한 학문이라면 후자는 땅(地)이라는 자연에 대한 탐구였다. 그리하여 동양의 천지(天地)라는 개념은 곧 서양의 자연(nature)을 가리키는 일반명사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천문의 대상인 일월성신도 형상을 가진 것이요, 지리의 대상인 산하대지 역시 형상을 가진 것이다. 그런데 형상을 가진 것의 이합집산과 생장소멸은 제멋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작위, 즉 보이지 않는 원리 내지는 기운에 의한다는 것이 인류가 자연현상을 관찰하면서 내린 결론이다. 이점에 있어서는 비록 관점과 용어에 차이가 있고, 정밀함의 정도가 다를 뿐 동서양이 다르지 않다. 이것이 소위 과학의 역사이다.

과학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자연현상이 왜 그렇게 작용하고 기능하는지 그 이유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은 이미 “입증된”

---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1998년도 중점연구소 지원 연구과제(3년 연구과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결과물이다(KRF-1998-005-B00103).

\*\* 서울대 철학과 교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가신의 체계이며,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방식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반복되는 현상들에 공통되는 법칙을 찾아낸 후 그것을 일반화하는 귀납적 탐구양식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론된 어떤 법칙도 가신에 불과하고 따라서 불완전한 수밖에 없다. 양자물리학의 대두에 따라 고전물리학의 진리가 상당부분 유예된 수밖에 없는 사정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류가 추론해낸 과학적 진리는 유용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마치 소림자 영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중력의 법칙이 문명의 발달에 기여했듯이.

서양에서 발달시킨 과학적 방법론이 그 자체의 개념규정에 함당한 이론만을 포용하는 것은 일견 당연한 일이다. 가설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설이 적용되는 테두리 안에서는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과학적 가설이라는 꼬리표를 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동양, 특히 한국인의 자연관과 실생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풍수사상의 경우, 지리학자나 건축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부분 미과학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풍수사상의 근거에 기(氣)에 대한 담론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기의 실체 — 정확히 표현하면 기에 대한 과학적 규명 — 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되겠지만, 보이지 않고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서양과학의 입장에서조차 반과학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동양의 과학전통에서 기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동양의학의 경우, 인체에 대한 이해와 질병의 치료원리는 기의 흐름과 강약을 조신, 통제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해부학적 근거를 중시하는 서양의학적 견지에서는 해부학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기의 통로인 경락과 경혈을 전제한 의술에 대한 불신을 쉽게 기누지 않는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임상효과의 통계수치 때문에 겨우 야만의 불레를 벗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것이 지리적

현상에 이르면, 현대과학의 기제로 측정되지 않고 또 달리 검증할 길도 없는 기를 운위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은 서양과학적 견지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동양과학진흥에서 기의 존재는 세삼스럽게 검증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이 점에 관해 지리학자 최창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풍수적 사고방식이란 지형과 기후, 그리고 풍토 등 넓은 의미에서의 지리관, 토지관이자 자연에 대한 해석방법이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본질적으로 자연적이며 인간적이고, 또한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자연풍토도 인간도 존재 자체에서의 신비성은 어쩔 수가 없다. 어떤 식으로든 이제 모두 알겠다는 따위의 합리직 설명이 전반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복잡하고 난해한 설명방식이 끼여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진실왜곡인 셈이다. 직관과 인간적 본능으로 능히 감지할 수 있는 하늘과 땅과 사람의 기의 운용에 관한 지혜가 이해 불가능한 미지의 것으로 되어버린 것이다. 이것이 한국의 풍수지리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내막이다.1)

직관과 본능적 인식을 신뢰하는 동양진흥에서 기는 나름대로 보편성과 개관성을 갖는 실체였으나 서양과학진흥에서 끝 때 그것에 대한 이론체계는 여히하더라도 아직까지 인류가 고안한 기제로 측정되지 않고 계량화되지 않는다. 이유로 비과학적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의식한 최창조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풍수지리”라는 복합어를 “풍수”와 “지리”로 해체하고 이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후자는 “땅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측면에서 의식주라는 경제적인 용도를 중시하며” 보는 관점으로서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감각적 실체를 그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학분적 연구의 소재로서 추구되어질 수 있는 것”이며, 전자인 풍수는 “땅의 본위적 성격, 다시 말해서 생명의 원천으로서 우리의 삶을 있게 하였고, 또 사후 우리들의 영면의 기소로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1) 최창조, 땅의 논리 인간의 논리, p.64, 민음사, 1992.

매우 신비스럽고 비합리적인 수밖엔 없는 대상으로 보이온” 관점으로  
 “진히 실체를 감지할 수 없고 오감으로는 그칠 수조차 없는 초  
 감각적 대상”이다.<sup>2)</sup>

풍수지리사상을 학문적으로 정초하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지만, 이러한 이원적 이해는 자칫 분체의 본질을  
 왜곡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 즉, 그가 말하는 함리상의 영역과 비  
 함리상의 영역은 기술(記述)적으로는 분리될 수 있을지 모르나, 현상  
 적으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땅의 생명력은 분명 불가사의한 측면  
 이 있지만, 그 생명력에 기초하여 인간의 일상적 삶이 영위되고,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만하자면 농양천학에서 운위하는 형이상자(形  
 而上者)와 형이하자(形而下者)의 관계로 이해하는 편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앞으로의 논의에서도 풍수적 요소와 지리적 요소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풍수지리를 우리 민족의 통합적인 자연관이라는  
 관점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것은 사물에 대한 분석적인 시각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직관과 감성의 세계를 포괄하는 것이다.

환경 문제란 따지고 보면 그 속에 사는 인간들이 지닌 근원적 세계  
 관의 산물이므로 사람들의 세계관 내지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또 바로 이 점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철학적 탐구가 요청된다  
 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런데 세계관과 가치관은 이성의  
 논리적 사유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직관적 통찰과 정서적 반  
 응의 체계로 이해할 수도 있다. 환경문제가 단지 이론이나 주장에 머  
 물지 않고 실천적 행위를 요청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진사보다는 후  
 자에 대한 규명이 보다 중요한 접근법일 수 있다고 하겠다.

환경천학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정신사적 맥락을 탐구하  
 는 것 또한 무의미한 작업은 아니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류의 포괄  
 적 연구는 흔히 집필자의 의도에 맡겨지거나, 기껏해야 뻔한 결론에  
 이르기 십상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천학이나 종교사상 가운데  
 에서 환경천학적 함축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상론하는 일반적인 배

2) 앞의 책, pp.61-62.

턴을 벗어나서 우리 민족의 구체적 삶의 양태 속에서 발견되는 자연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그것을 가능하게 한 민족적 정서를 바탕으로 환경철학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자연관의 배경

### 1) 몇 가지 에피소드

잘 알려진 얘기지만 1950년대 말 펄벅 여사를 취재했던 이규태는 다음과 같은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경주 여행 중 차안에서 바깥을 내려다보던 펄벅 여사가 감나무 끝에 달려 있는 10여 개의 따지 않은 감을 보고는 따기 힘들어 그냥 두는 거냐고 물었다. 그가 까치밥이라 해서 겨울새들을 위해 남겨둔 것이라고 설명하자 여사는 탄성을 질렀다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야, 내가 한국에서 와서 보고자 했던 것은 고적이나 왕릉이 아니었어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한국에 잘 왔다고 생각해요!” 펄벅 여사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하나 더 소개하자면 소달구지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게에 지고 소의 뒤를 따라 가는 농부의 모습에서 너무나 큰 감명을 받았다는 술회이다. 하찮은 동물을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순박한 한국인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심상하게 보이는 현상이 이국인의 눈에는 유별난 사건이 되는 것은 그만큼 동서양의 자연, 혹은 자연 속에 서식하는 인간을 제외한 동식물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상존함을 반증하는 것이지만, 비단 동물에 대해서만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 식물과 관련된 금기어에서 나타나는 당나무나 동네 어귀의 큰 느티나무에 대한 비호와 경외의 관념<sup>3)</sup>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애니미즘이나 토테

3) 진교훈은 식물보호와 관련된 금기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큰 나무를 베는 사람은 쉬 죽는다.

미증의 유습이 속신과 결합한 측면도 없지 않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신명이 잘 되지 않을 만큼 우리 민족과 수목과의 사이에 여기는 교감의 농도는 남다른 바가 있다.

인간과 자연을 일체시하는 것은 무정물인 산수와 강해에 대한 태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가이아이론이 부색하게 우리 민족의 선인들은 일찍이 만물이 상호의존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한 듯하다. 인간의 활동을 자연계의 운행의 일부로 파악하여 기침(起寢)의 진도를 일출에 맞추는 것을 양생의 법칙으로 삼았는가 하면, 농경직 삶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24신기의 구분 또한 해와 달의 운행주기에 맞춘 것이다.

이것이 하늘의 질서를 본받은 예라고 한다면 땅의 질서를 존중한 것이 풍수사상이다. 알지 못하는 대상을 연구할 때, 가장 미근한 접근법은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 유추하거나, 그것과의 유비관계를 통해 파악하려는 태도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의 꿈이다. 자연은 먼저 사람의 꿈을 통해 이해된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꿈에서 일어나는 현상 및 그 환동양상과 자연 현상을 동일한 원리로 유추하는 것이다. 원시 신앙형태에서 보이는 자연신은 후에 인격신적인 면모를 갖춘 후까지 이러한 의인화의 한 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현상을 인간의 활동에 빗대어 신격화 한 것이 원시 신앙이었다면 자연을 사람의 문과 유비관계로 파악한 것이 풍수사상의 출발점이라고 하겠다. 산자락이 훼손되어 기백이 끊기는 것을 사람 문에 생채기가 나고 수족이 잘리듯이 생각하는 정서적 반응은 이에 연유하는 것이다.

고목이 쓰러지면 흙사가 난다.

나무를 많이 베면 산신령에게 미움을 받는다.

식물이 말라 죽으면 집 안에 끈길한 일이 생긴다.

(진교훈, 환경윤리-동서양의 사인보진과 생명존중, p.187, 민음사, 1998)

이 가운데 세 번째, “나무를 베면 산신령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속신에 대해서 역시 속신에 불과하겠지만 최근 사식에서 오간 얘기가 생각난다: 나무를 많이 베고 자연을 훼손한 기업들의 뉘끼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자연에 대한 친근감 내지 자연회귀적인 태도는 과거 전통사회 지식인들이 이룩한 문학적 업적에 여실히 나타난다. 고대광설에서 오욕의 즐거움을 구하기에 부족함이 없던 사대부들의 시문에서 하나같이 자연회귀의 바람을 발견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아울러 은둔한 선비들의 사회인 사림(士林)의 전통이 우리나라같이 오랫동안 제도권의 한 축을 담당했던 사례 또한 고래로 드문다. 한편으로는 사대부들의 은둔이 험난한 세상에서 복수를 부지하고자 했던 방편이었던 것도 사실이지만,<sup>4)</sup> 그 이전에 자연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의식이 있었던 것이다. 김인후(1510-1560)의 나운 시조는 인간 또한 자연과 나름마 없는 존재임을 노래하고 있다.

靑山은 절로절로 綠水도 절로절로  
 山 절로 水 절로 山水 간에 나도 절로  
 그 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 하리라

자연은 신명을 고존하기 위해 피해서 숨는 곳이기도 하지만, 바꾸어 말하면, 돌아가 몸을 의탁하여 쉼 곳이기도 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기도 한 것이다. 이상의 몇 가지 에피소드는 우리 민족이 동식물 뿐만 아니라 무정물인 산과 들, 강에 대해서도 유달리 친화적이고, 일체감(symathy)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드문 경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오지의 미개종족이 아닌 수천 년 역사를 가진 문화민족으로서 여타 문화권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자연친화적, 혹은 자연회귀적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독특한 자연관의 배경은 무엇일까?

4) “아아, 사대부가 때를 만나지 못하면 갈 곳은 산림뿐이다. … 조정에 나아가 벼슬하고자 하면 칼, 뿔, 솔가마 따위로 정식을 시로 죽이려는 당쟁이 시끄럽게 그치지 않고, 초야에 물러나 살고자 하면 만점 푸른 산과 천경 푸른 물이 없는 것은 아니건마는 쉽게 가지도 못한다.”

이중환(이익성 옮김), 태리지, p.225, 을유문화사, 2002.

## 2) 자연환경과 민족성

조지훈은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을 지세와 기후와 천연 산물로 나누어 일별하고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5)</sup>

첫째, 지세는 동반구의 동쪽에 자리잡아 대륙에서 들출한 반도와 여러 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륙성과 해양성을 함께 갖추고 있다. 이로써 “섬나라 같은 맑고 아담한 경치와 대륙적인 소조삭막(蕭條索漠)의 풍치가 어울리어 그 해양성은 심미적이다.”

둘째, 위도상으로 온대에 치해 있으나 기후는 아열대, 온대, 한대가 교대하기 때문에 사철의 순환과 추이가 명료하나, 따라서 우리 기후의 성격은 온화하면서도 자극적인 데가 있다.

셋째, 난해를 흐르는 한난(寒暖)의 해류는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지질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함유하며, 토양 역시 양호하나, 여기에 직결한 강우량이 너해서 인생 동물학의 견지에서도 천혜의 호조건을 시녔다.

이어서 조지훈은 우리의 민족성이 위에서 에거한 해양성과 대륙성을 기지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해양성과 대륙성은 우리 민족에게 평화성과 격정성이라는 두 가지 기본 구성요소를 주었다. 이 국토의 지세, 기후, 정황, 산물은 하나의 인력이 되어 원시의 우리 선민(先民)을 받아들이며 본래 대륙적이고, 정한(精悍)하던 선민을 이 풍도의 해양성이 평화적으로 민성시켰다. … 그러나 … 수렵과 유목으로 일삼던 우리 선민들의 강한(剛悍)한 습성은 그 평화성 안에 잠세모시 들어 있었다. 이 실례가 고구려식 성격이요, 뒤의 변성된 성격의 진형이 신라식 성격이다. 항상 평화를 간구하면서도 정치식 환경은 격정의 지배를 받도록 마련되어서 그것을 주기적으로 폭발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계절종적 격정성”이라고 부르고자 한다.<sup>6)</sup>

5) 조지훈, 한국문화사서실, pp.24-25, 나남출판, 1997.

6) 위의 글, pp.26-27.



그의 주장에 따르면 통일신라의 문화야말로 해양성적인 명상성(冥想性)과 대륙성적인 응혼성의 조화가 시현된 대표적 예이며, 그 꿈과 힘의 조화가 깨뜨러진 때 명상성은 낙진성으로 응혼성은 향락성 혹은 감상성으로 변성되는 것이라 하였다. 조지훈이 기마민족의 농경민족으로의 전환에 주목하여 우리 민족성의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해 낸 것은, 농의 여부를 떠나, 박견이 아닐 수 없다. 그의 만대로 두 가지 성격 중 격정성이 정치적 환경의 지배를 받는 계신풍직 특성을 갖는 것이라면, 우리 민족성의 유일한 바탕은 평화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평화성이란 기본적으로 비교적 온화하고 양호한 기후풍토와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형성된 것이다. 농시에 이러한 평화성은 자연이 주는 편안함과 여유로움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할 터이다. 그것은 미술심리학적 실험에서 밝혀진 바와도 부합된다.<sup>7)</sup>

켄사스대학 부속 미술관에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한 적이 있다. 한 벽면을 엷은 베이지색으로 칠하고 또 한 전시장은 어두운 갈색으로 칠했다. 그랬더니 베이지색 방에서는 관중의 걸음걸이가 어두운 갈색 방에서보다 훨씬 느려지고 방안에 있는 시간도 더 길어졌다. 그 내신 관중이 움직이는 면적은 훨씬 더 좁아들었다. ... 비슷한 실험을 브랜다이스대학에서 한 적이 있다. 이때에는 추악한 방, 아름다운 방, 보통방의 셋을 마련하고 그 속에서 학생들이 작업을 하도록 했다. 그랬더니 추악한 방에서 일하는 학생이 제일 먼저 일을 끝냈다. 그리고 아름다운 방안의 학생들의 일이 제일 더니 걸렸다.

저자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부연하지 않고 있지만, 이 실험결과를 접한 필자는 한국의 아름다운 신수와 하늘빛이 우리 민족의 낙천성과 여유로움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한다. 그것은 애정을 받고 자란 아이가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비교적 운순한 심성으로 자라나는 것과 같다.

7) 홍시승, 한국인의 미의식, p.143, 전예원, 1982.

### 3. 풍수사상의 환경철학적 특성

이중환(1690-1752)은 택리지(擇里志)의 복거총론(卜居總論) 서두에서 사람이 살 터전으로서의 자연환경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무릇 살 터를 잡는 데는 첫째, 지리(地理)가 좋아야 하고, 다음은 생리(生利)가 좋아야 하며, 다음으로 인심이 좋아야 하고, 또 다음은 아름다운 산과 물이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에서 하나라도 모자라면 살기 좋은 땅이 아니다. 그런데 지리는 비록 좋아도 생리가 모자라면 오래 살 수가 없고, 생리는 좋더라도 지리가 나쁘면 이 또한 오래 살 곳이 못된다. 지리와 생리가 함께 좋으나 인심이 나쁘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있게 되고, 가까운 곳에 소풍할 만한 산수가 없으면 정서를 화창하게 하지 못한다.<sup>8)</sup>

필자는 이것이 우리 민족이 자연에서 구하는 바를 적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실용적 요소, 심미적 요소, 그리고 기로 불리우는 형이상학적 요소이다. 생리가 땅에서 생산되는 재화를 가리키므로 인심과 함께 실용적 요소를 구성하는 것이라면, 아름다운 산수를 심미적 요소를 말하며, 지리란 땅의 형이상학적 이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풍수 개념이 결합된 환경철학적 요소로 볼 수 있다.

#### 1) 환경철학적 요소

요즘 대두되고 있는 생태학적 관심을 과거의 역사에서 찾는다는 것은 많은 경우 부적절한 것은 문제가 없는데 해결책이 모색될 리가 없기 때문이다. 환경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지는 불과 얼마

8) 이중환(이익성 옮김), 택리지, p.135, 을유문화사, 2002.

되지 않는다. 그러나 풍수지리와 관련해서 오늘날에도 관심을 끄는 것들 가운데 서울의 주산논쟁과 청계천 명당수의 오염문제가 있다. 이는 조선 초 세종 때의 대표적 논쟁으로서 풍수사상과 생태학의 접점을 짐작할 수 있다. 논쟁의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9)</sup>

다음은 주산논쟁을 일으킨 세종 15년 최양선의 계청이다:

경복궁의 북쪽에 있는 산(주산인 북악을 말함)은 주산이 될 수 없습니다. 북덕산(지금의 남산)에 올라보니 실제 주산은 숭문원 기지인 향교동(지금의 성균관 일대; 필사 주) 인백이 바로 그곳으로 이어집니다. 도성을 축조할 때 왜 이곳을 궁궐터로 하지 않고 백악의 아래쪽을 선정했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지리서에 이르기를 인가가 주산의 형에 있으면 자손이 쇠미하여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백악의 아래에 있는 경복궁이 아니라 숭문원 터에 있는 창덕궁으로 주궁을 삼으면 만세의 이득이 있을 것입니다.<sup>10)</sup>

주산이란 한 도시의 상징적인 공간 지각상의 표상일 뿐 아니라, 도시 사체의 공간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존재이다. 옛 한양의 사대부를 중심으로 본다면 북악산이 북서쪽으로 치우친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도시의 발전도 남서쪽으로 치우치는 결과를 낳았다. 오늘날과 같이 서울의 중심이 사대부안으로 한정되지 않고 사방으로 팽창된 상황에서 볼 때는 이러한 주산논쟁이 변 의미가 없는 듯이 보이나 도시의 공간구조 외에 최양선이 주장한 바, 주산의 형에 인가 (현재의 청와대 일대)가 있는 것이 길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러한 풍수적 견해는 지금에도 유효하다고 하겠다. 더욱이 그 당시에는 도시의 환도와 균형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무시되고 만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청계천의 오염에 대한 것이다. 역시 그 당시 풍수학인들은 명당수가 맑고 깨끗해야 힘에도 분부하고 오염되

9) 최창조, 위의 책, pp.58-59.

10) 세종실록, 15년 7월 갑인조(제인용).

고 있는 만큼 그것을 칭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생활현장의 하수 처리장인 칭계진이 언제나 깨끗하기를 바랄 수 없다는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주장에 문히 이 역시 실현되지 못하였다. 오늘날의 칭계진 복개와 복원을 둘러싼 문제의 반단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정작 아쉬운 것은 최창조의 견해에 따르면 이를 계기로 조선초기의 긍정적 풍수가 함께 불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다.

풍수사상을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것으로 보는 견해와 중국기원으로 보는 입장, 그리고 그 둘의 신중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나 아직까지 분명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연원이 무엇이든 우리나라의 자연관에 신대한 영향을 끼친 사유방식임에는 틀림없다. 풍수사상은 기본적으로 땅과 땅의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관한 이론 체계이다. 한 마디로 땅과 하늘과 사람의 운용에 관한 지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대로 그 밑바닥에는 자연과 인간의 동질성에 대한 통찰이 있고, 우주유기체론적 사유가 깔려 있다.

지금은 풍수라 하면 먼저 음택 풍수를 비리에 떠올리게 되지만, 나말여초의 풍수사 중에는 불교의 선사가 많다. 그들이 관심을 가진 것도 주로 절이나 왕궁, 지배계층의 저택을 점지하는 건전한 양택풍수였으며 그 후 조선시대에 들어 풍수사상이 나락하면서 비술적 방이석 풍수와 음택풍수의 풍조가 만연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조선 초기까지는 새로운 왕조에서도 여전히 풍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이며, 관상감에서 풍수학 교육 진담기구가 운영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위에서 지적한 마와 같이 세종 때 풍수논쟁에서 정치가와 권신들의 현실론에 패배한 이후 권분체가의 가분의 민생을 보장하는 자리를 잡아주는 타락의 길로 들어선다. 최창조에 의하면 대체로 성종대 이후 유가의 현실주의 내지 합리주의에 패퇴한 후 “본질적 실체가 의심되는” “망국직” 음택풍수의 만연하게 되고 그것을 풍수사상 쇠퇴의 시발로 본다.<sup>11)</sup> 풍수가 조선의 지배이념인 유학의 효사상과

11) 최창조, 앞의 책, p.59.

결합함으로써 이기적 속신으로 발전할 소지를 제공한 것도 한 요인이라 하겠다.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껌테기 풍수, 가짜 풍수만 잔존하게 된 것이 우리나라 풍수사상의 약사(略史)이다.

그러나 동기감응(同氣感應)신과 친자감응(親子感應)신에 근거한 음택풍수는, 그것이 반드시 근기가 전부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지라도, 발복을 구하는 천박한 이기주의가 편승함으로써 비난을 자초하고 그 결과 불락하게 된 것이다. 홍대용, 박세화가 유택발복의 희망함을 논한 것도 그런 맥락이지만<sup>12)</sup>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택풍수의 실상은 결코 풍수의 본령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 2) 실용적 요소

풍수적 사고의 터전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모색하는데 있다. 앞에서 서울이 수산논쟁과 정계천 명당수에 대한 논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궁정적인 양택풍수에는 인분지리와 국토지리직 관심이 함께 배내되어 있다. 예컨대 풍수이론에 입각한 우리나라의 마을은 대체로 산중턱과 강의 북안에 위치하고 있다. 산에 의지함으로써 찬바람을 막고 중턱에 위치하여 홍수를 예방한다. 남향은 햇빛을 받는 방향이고, 강안은 물을 얻기 편리하다. 이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자연적이고 인간적이다. 궁극적으로는 자연도 인간도 신비한 존재라서 모두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설명 내지 운용의 여지가 생기는 것은 물론 풍수의 형이상학적 토대가 결코 간단치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다.<sup>13)</sup>

12) 최창조, 앞의 책, p.67. “길흉화복과 이해득실은 모두 천도의 사인이자 사람의 행위(상사터의 기흉)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최창조 역시 사람이 사달다운 사람이 되지 못하는 한 어떤 수단으로든 명당 길지를 얻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풍수를 이기적 탐욕의 도구로 삼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13) 앞에서 지적한대로 풍수사상에는 분명히 논리적이고 물리적으로 규명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장차 상당 부분 과학적 규명이 가능하리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며, 이것을 합리적 사유 안으로 끌어들어서 재조명하

다만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풍수라는 용어에서 강조되는 것은 바람과 물의 요소이지만 빛에 대한 배려는 일상생활의 의식주와 연관되는 양택풍수에서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가늠이 다를 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겠다. 빛이 풍수이론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풍수구성의 기본요소가 산, 수, 방위, 사람<sup>14)</sup>이라는 네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어떤 地點이 특정의 坐向을 갖기까지 검토되는 향은 輿의상 絶代向과 相對向으로 區分해볼 수 있는데, 絶代向이란 天體의 움직임, 특히 人間生活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太陽의 운행에 의해 결정지어지는 向으로서 時間性을 내포한다. … 太陽의 運行에 의한 日照, 日射效果, 地域에 따른 季節風 등의 기후 여건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北半球 中緯度地方의 住居로서는 東南向 내지 南向 사이가 理想的인 絶代坐向이 된다. … 相對向이란 絶代向 이외의 조건으로 成立되는 向인데 이는 내지에서 出發하며 社會性을 반영한다.<sup>15)</sup>

전통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대상은 채광과 통풍이며, 농경문화에서 빛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방위와 관련된 빛의 수용 및 배척은 풍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풍수지리의 근원은 농업적 생산양식 위에 나타난 사교방식임에 분명하다. 농업은 땅과 기상조건에 의하여 좌우되며 그 대표적 조건이 바람과 물, 즉 풍수이다. 그러나 양택풍수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빛의 요소, 즉 방위에 대한 배려가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간이 살기 위해 자연을 살려야 한다는 실리적 측면이 최근의 생태학적, 환경론적 추세 가운데 하나라면,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토대로서의 자연이 베푸는 시혜에 가장 민감한 농경문화적 특성에서 그 단초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북방의 기마민족이 오래 전 남하하여

는 방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p.153, 민음사, 1993.

15) 장성준, “풍수지리국면이 갖는 건축적 상상력에 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지』 제22권 85호, pp.20-21, 1978.

농경사회를 이루어가면서 자연과의 교감의 폭을 넓혀왔다는 자신을 수용한다면 우리민족의 자연에 대한 정서는 자연이 베푸는 시혜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자연의 위세에 대한 경외감이 있을 터이다. 첫째, 친화감이란 농사가 인간생활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로부터 내려온 자연에 대한 고마움 내지 친근감을 말하며, 둘째, 경외감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자연에 대해 갖게 되는 두려움이다. 서양의 정신사가 이성에 의한 자연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 확대하는 것에 비해 우리는 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그것의 원리를 탐구했고 그것이 동양문화권의 유양오행과 풍수사상의 연원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연의 일방적인 영향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치수와 관개와 같은 물리적 수단이 강구되는데 이 또한 풍수적 지혜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다.

### 3) 심미적 요소

조지훈은 민족성과 민족문화와 문물을 다식판에 비유하고 있다. “다식판을 민족성이라 하고, 조각을 민족문화라 하고, 거기에다 박아낸 다식을 민족문물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족문물의 원형은 민족문화요, 민족문화의 바탕은 민족성이란 말이다.”<sup>16)</sup> 여기에서 심미적 요소를 부기하는 것은 민족문물의 원형이 민족문화요, 민족문화 속에는 풍수사상이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민족의 독특한 심미안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왔지만 필자는 그것이 풍수사상으로 대표되는 자연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본다. 한국인의 미의식은 한마디로 자연상태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존 코벨이라는 한 서양인의 글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한국인들의 미자연에 대한 태도는 무사태평의 상태라고 말할 수

16) 조지훈, “민족문화의 낭면 과제”, 『문화』 제1집(1947. 8).

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좋아한다. ...17)

집을 짓더라도 사면의 자연풍광 속에 조화시켜 그대로 편안한 그리고 자연의 한 끈이 집 틀일 수도 있고, 이 집 틀은 담을 넘고 들을 건너서 사위의 자연 속으로 번져 나가는 것이 한국 주택의 생리이다.18) 즉, 보낼 것이 없는 자연에 무엇을 보낼 때는 가급적 휴전이 되지 않게 하고, 조금 욕심을 부리자면 화룡점정을 하듯이 입지와 형상을 구상하였고, 이때 그 조화의 기준은 물론 자연이었다. 기와의 멋들어진 주니와 주니 사이의 선이 그만큼 거리에서 마주잡고 있는 새끼줄의 선을 본 따 것이라는 얘기 역시 가급적 자연에서 아름다움의 전형을 찾고자 한 노력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풍수에 입각해서 터를 잡을 때에도 안에서 밖을 보고, 밖에서 안을 보는 쌍방향 시각이 고려되었던 것이다. 최순우는 인공미와 자연미를 조화시킨 대표적인 예로 죽서루 덩빙주초를 꼽는다. 그의 미문은 그대로 옮긴다.

마치 병풍처럼 둘러선 푸르른 난에 위에 날아갈 듯 자리잡은, 굽이 굽이 맑은 강신에 그림자를 띄운 그 순박한 정자의 모습도 모습이려니와 이 누대 기둥들을 떠받치고 있는 덩빙주초의 희한한 조화미에 내 마음이 흥거웠던 것이다. 생긴 그대로의 절벽, 바위 둔덕 위에 울멍진 높고 낮은 자연암석들을 적당히 의지해서 주초로 삼고 불가피한 곳에만 자연석을 옮겨놓아 주초의 수를 채웠으므로 기둥 간이를 여기에 맞추어 길게 짧게 마름전한 것이 덩빙주초였다. 따라서 이 죽서루의 대청 밑은 생긴 대로 지형 위에 길고 짧은 기둥들과 크고 작은 자연암반들로 이루어진 초석들의 양감이 마치 내초의 짓인 양 자연스럽게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19)

최순우는 죽서루의 덩빙주초의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한다. 하나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최상의 위치를 잡하기 위한 것이며 다른 하

17) 홍사중, 앞의 글, p.168(재인용).

18) 최순우,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p.15, 학고재신서, 1994.

19) 앞의 책, p.20.



나는 자연에 대한 외경의 표징이다. 이 둘에 공통되는 것은 역시 풍수적 고려라는 것이다. 즉 자연과의 조화를 꾀하는 한편, 자연물을 가급적 훼손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낳은 명품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를 보탠다면 인공물과 자연물이 묘하게 조화되는 데에서 오는 심미감을 즐긴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나라의 전통 예술이 특히 작위적인 것을 싫어하고 완벽성, 합리성을 미워하여 짐짓 여백과 빈틈을 허용하는 것은 일종의 여유로움이기도 하겠지만 자연의 비정형에 익숙한 탓이 아닐까 한다. 이렇듯 우리 민족의 독특한 미의식과 자연과의 친화적 분위기에서 싹튼 탐미적 전통은 우리민족의 문화적 특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며 위대한 자산이 아닐 수 없다.

#### 4. 맺는 말

위에서 자연과의 일체감과 자연회귀적 특성이 우리민족의 자연관의 한 전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다. 비록 자연과 인공은 질적 차이가 아닌 양적 차이이며 정도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자연과 인간의 문화적 산물은 엄연히 구분된다. 따라서 자연회귀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문명에 대한 거부도 아니요, 자연의 절대화도 아닌 조화와 균제의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자연주의가 이데올로기가 될 위험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 상태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인간의 작위 역시 자연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재현할 수 있을 때 작위 아닌 작위가 된다. 자연은 진솔하고 천진한 것이며 가식과 작위와 기교가 없다. 그 속에서 삶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줄 안다는 것은 자연과의 깊은 교감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민족이 자연을 훼손하기를 꺼린 것은 자연이 자연으로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동시에 그 아름다움을 즐길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의식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완벽한 자연스러움은 자연스러움 그 자체 마저 의식 없음을

때라는 말은 옳다.

우리민족의 자연에 대한 애정과 경외심은 남다른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것은 한갓 이론이나 주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용해된 실존적 정신이다. 이러한 풍속이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휩쓸려 사라져 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인류사의 진행을 반드시 발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단신되지 않은 흐름으로 이어져 온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변화를 전제한다. 전제적으로 환경이 변하는데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심정과 사고가 변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할 순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변치 않아야 할 것이 있고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이것이 자연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라면 이러한 디딤을 보존하는 은고지신의 지혜가 필요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 참고문헌

- 김원룡, 한국미의 탐구, 열화당, 1978.
- 이중환(이익성 옮김), 택리지, 을유문화사, 2002.
- 조가경/류슈셴 외, 『환경; 자연의 훼손과 재창조』, 우석출판사, 1989.
- 조지훈, 한국문화사 서설, 나남출판, 1997.
- 진교훈, 환경윤리 — 동서양의 자연보전과 생명윤리, 민음사, 1998.
- 최창조, 땅의 논리 인간의 논리, 1992;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1993.
- 최순우,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 학고재신서, 1994.
- 홍사중, 한국인의 미의식, 전예원, 1982
- J. Baird Callicott and Roger T. Ames ed. *Nature in Asian Traditions of Thought*, SUNY Series in Philosophy and Biolog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9.